아마추어 김경태 우승… 시즌 2승

프로 허석호 3위 올라 우승상금 챙겨

KPGA 삼성오픈 최종

한국 골프의 차세대 에이스인 아마추어 김경태(20·연세대)가 10일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안투어 삼성베네스트오픈(총상금 6억원) 정상에 올랐다.

국내 아마추어 최강인 김경태는 5월 포카리에너젠오픈 우승에 이어 정규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김경태는 이날 경기도 가평 가평베네스트골프장(파72·6천96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호주국가대표이자 같은 아마추어인 이원준(21)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아마추어가 1, 2위를 차지하고 프로 선수 가운데는 허석호(33)가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3위에 올라 우승 상금을 타게 됐다.

1, 3라운드 선두였던 정준(35)은 3타를 잃는 부진 끝에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강지만(30·동아회원권)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그쳤다.

이달 초 한국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15타차 우승을 차지, 대회 최다 타수차 우승기록을 경신한 김경태는 앞서 7월 일본아마추어선수권대회 2연패, 한일 아마추어 내셔널타이틀을 모두 제패하는 등 아시아 정상급 실력을 인증받았다.

환하게 웃는 김경태

10일 경기도 가평 가평베네스트골프장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안투어 삼성베네스트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김경태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이번 대회 마지막 라운드는 아마추어 최강자들의 매치플레이같은 인상을 줬다.

호주 최강인 거구의 장타자 이원준(191㎝)과 일본, 한국을 통틀어 아마추어 최고수인 김경태의 대결.

김경태는 장타력에서는 30야드 이상 뒤졌지만 한꺼번에 무너지는 실수는 없었다.

11번홀까지 이원준에 뒤지고 있던 김경태는 이원준이 12번홀에서 1m짜리 보기퍼트를 실패하면서 더블보기를 범하고 13번홀에서도 보기를 저질러 3타를 잃으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김경태는 그러나 16번홀(파5) 그린 주변에서 세번째 샷을 실수해 보기를 범하고 이원준이 버디를 잡아 다시 1타차로 좁혀지면서 2개홀을 남기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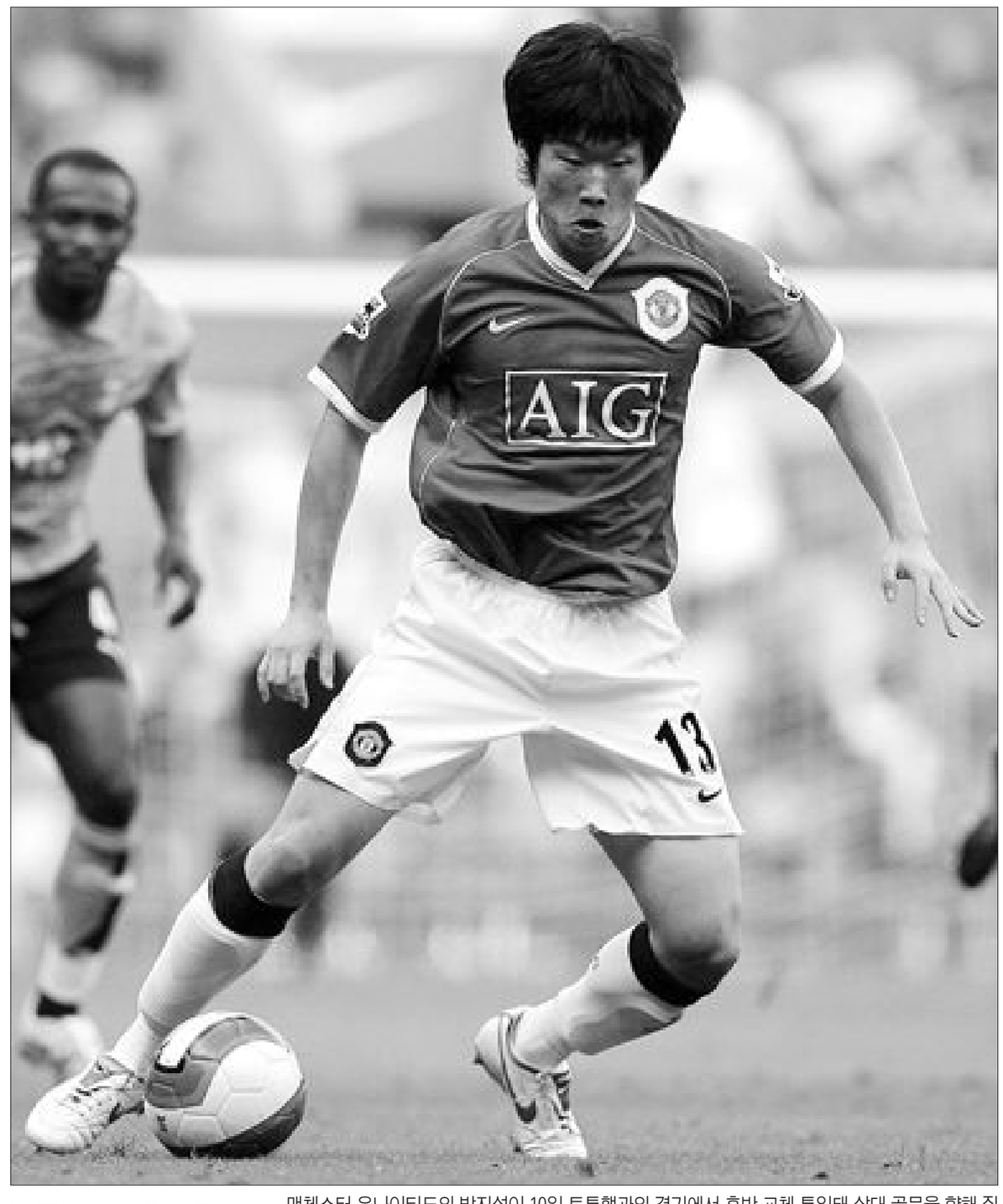
18번홀(파4)에서 긴장감은 극도에 달했다. 둘 모두 2m가 약간 넘는 파퍼트를 남겨놓은 것.

이원준이 파를 지키고 김경태가 보기를 한다면 연장전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었다.

거리가 약간 긴 이원준이 먼저 파퍼트를 성공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김경태는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파퍼트를 성공시켜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정규투어는 개막전에서 아마추어 강성훈(19·연세대)이 우승하는 등 지금까지 치른 10개 대회중 아마추어 선수가 3개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질주하는 맨유 엔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10일 토튼햄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상대 골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 소렌스탐 제치고 선두

이미나 3언더파 공동 7위

LPGA 존큐해먼스클래식 2R

크리스티 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존큐해먼스호텔클래식 둘째날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제치고 선두로 도약했다.

커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시다리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솎아내 10언더파 61타로 생애 18홀 최저타이자 코스레코드를 작성했다.

첫날 1언더파 70타로 공동 13위에 머물렀던 커는 합계 11언더파 131타로 소렌스탐(132타)을 2위로 밀어내고 시즌 3승이자 통산 9승을 넘봤다. 그러나 상대가 소렌스탐인 만큼 1타차로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날 대결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투어 2년차인 앨리슨 헤나(미국)가 3위를 달리고 있으나 합계 5언더파 137타로 타수 차이가 크게나 3라운드는 커와 소렌스탐의 매치플레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이날 2타밖에 줄이지 못해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4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미나(25·KTF)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폴라 크리머(미국) 등과 공동 7위를 형성했고, 신예 유선영(20)은 합계 2언더파 140타로 공동 11위에 올라 톱10 입상을 노렸다.

한희원(28·휠라코리아)은 이날 1타도 줄이지 못해 이븐파 142타로 공동 21위까지 떨어졌다. 송아리(20·하이마트)는 이날 6타를 잃는 부진 끝에 컷오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용은 JGTO 첫 승

〈日프로골프투어〉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양용은은 10일 일본 지바현 선토리골프장(파70)에서 열린 선토리오픈 마지막 날 7언더파 63타로 데일리베스트샷을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해 호시노 히데마사(일본·272타)를 6타차로 크게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앞서 올시즌 6개 대회에서 톱 10에 든 양용은은 이로써 시즌 첫 우승이자 JGTO 통산 4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2천만엔.

선두에 3타 뒤진 4위로 출발한 양용은은 버디를 8개나 뽑아내고 보기는 1개에 그쳐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올해 6월 JGTO 2부투어인 챌린지투어에서 최연소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던 국가대표 출신 기대주이자 아마추어 이동환(19·고려대)은 합계 2언더파 278타로 공동 19위에 올랐다.

박지성 후반 교체 투입

맨유, 토튼햄 꺾고 4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토튼햄을 꺾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파죽의 4연승을 달렸고 박지성(25)은 후반 교체 투입돼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토튼햄의 이영표(29)는 출전 명단에서 제외돼 박지성-이영표의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무산됐다.

맨유는 10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시즌 4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9분 터진 라이언 긱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토튼햄을 1-0으로 눌렀다.

맨유는 개막 이후 4전 전승(승점 12)으로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아시안컵축구 예선에 출전하느라 장거리 비행을 한 박지성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고 벤치에 앉았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왼쪽 미드필더에 키어런 리처드슨을 중용했다.

박지성은 후반 25분 리처드슨 대신 투입돼 인저리타임까지 23분 간 뛰었으나 볼 터치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박지성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열정적인 움직임(infectious attitude)'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6점을 매겼다.

박지성 대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키어런 리처드슨은 '실망스러웠다'는 혹평과 함께 5점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11일(월)

▲US 오픈 테니스(08 : 00·Xports)

▲AFC U-17 챔피언십 축구 8강1(18 : 00·Xports), 8강2(21 : 00·Xports)

▲제3회 C&M 케이블TV기 초등학생 야구대회(14 : 00·MBC ESPN)

12일(화)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맨체스터시티〉(04 : 00·MBC ESPN)

인애공인중개사
핸 011-642-0391

횟집임대
- 고급횟집하실분환영
- 횟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탁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횟집건물매매
- 고급횟집하실분환영
- 대98평 연건평 388평
- 6층건물 3층,4층,5층,6층 임대완료
- 1층, 2층 고급횟집 130평 탁자 42석(연회석 완비)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상무지구를 주목하라 행정도시, 금융도시, 공공기관 집중
-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

동부부동산컨설팅(주)
투자상담 ☎ 681-0453, 핸 010-4628-5454
(금호동 마재우체국 옆)

- 일반물건 -

서구 금호동 4층 다가구 주택
- 일룸10개/ 40평형 주택
- 보증금 1억원/ 월 300만원(월지 5천만원) 수입
- 매매가 4억2천만원

서구 쌍허동 다시랑병원 뒤편 자연녹지 350평
- 순환도로 인접/ 투자가치 양호
- 매매가 평당70만원

첨단C 부근 자연녹지 5,000평
- 인근 8차선 도로 공사중/ 분할가
- 용도 : 공장, 물류창고, 골프연습장등
- 매매가 : 평당 65만원(주변시세 80만원)

양산동 대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접 4,000평
- 용도:종합병원, 대형상가, 마트, 전시장등 기타
- 매매가 평당 200만원(전체 80억원)

광산구 운수동 호재많은 대로변 대지 330평
- 주유소, 물류센타, 기타 적합
- 매매가 평당 320만원

광산구 선암동 선운택지지구 대로변 600평
- 주유소, 상가, 병원등 - 매매가: 평당 230만원

동구 불로동 대로변 나대지 225평
- 용도:웨딩빌딩, 전시장, 주차장 적합
- 매매가 평당 750만원

서구 금호동 부영아파트 부근 4층상가
- 대지 115평 / 건물 270평
- 보증금1억 월500만원/ 매매가 6억8천만원

서구 화정동 서광주세무서 앞 6층 상가
- 대지 113평/ 건물 430평
- 보증금 3억/ 월세 1,300만원/ 매매가 17억원

서구 매월동 유통단지 대로변 1,000평(분할가)
- 주유소, 물류창고, 교회, 병원(노인병원)등
- 매매가:평당 230만원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앞 대로변 250평
- 주유소, 상가, 기타 적합 - 매매가 평당 230만원

서구 서창동 부근 도로접 주거지역 답 1,660평
- 물류창고, 전원주택, 노인병원
- 매매가:평당 80만원

북구 용두동 북측 지야동 자연녹지 약8035평
- 투자유망지구/ 첨단산업기지 및 아파트단지형성중
- 매매가:평당 60만원

화동 대로변 4층상가
- 대지60평, 건물 150평
- 보증금 8천만원/ 월450만원
- 3억원

완도 대신리 자연농원 4만평
- 교통 편리/ 개발 가치 양호, 드라마 '해신'촬영지 부근
- 매매가:평당 5만원(교환가)

완도 고금도 펜션부지 4,000평(분할가)
- 해안 도로접, 전망 좋음, 투자가치 양호
- 매매가:평당 15만원

영암 신북 농공단지 공장 2,300평
- 매매가:평당25만원

함평 월야면 외치리 4차선 도로 부근 LC인접 3,000평
- 용도 : 공장, 물류창고, 주유소
- 매매가:평당 20만원

- 경매 투자 물건 -

서구 풍암동 5층상가
- 대지 94평/ 건물 360평/감정가 10억/최저가:5억

첨단 8층 모텔
- 대지170평, 건물650평/감정가21억/최저가10억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앞 5층 상가(목욕탕)
- 대지580평, 건물1,230평/ 감정가 50억, 최저가 23억

금호동 서구문화센타 앞 5층 상가
- 대지 156평 건물 670평/ 감정가 21억, 최저가 12억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타 부근 5층
- 상가 대지140평, 건물 450평/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평동공단내 공장
- 대지 1,300평, 2층 건물1 ,600평/ 감정가 25억, 최저가12억

경/공매 투자 상담 환영(공장, 상가, 대지등)